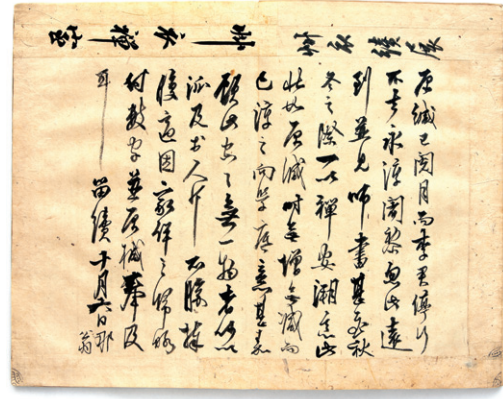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 초의 통해 선리 증험 · 불교사유 확대

제주 시절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이 편지는 《완당전집》(여초의) 20신에 수록된 것인데, 《벽해타운첩》의 발췌로 어느 해 10월 6일 쓴 편지임이 확인된 것이다. 대략 제주 유배 초기의 편지일 것이라 추정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가 담긴 <벽해타운첩>

편지를 써 놓은 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군이 행차를 멈추고 아직 떠나질 않는군요. 영순 스님이 갑자기 이 멀리까지 왔으며, 아울러 (영순 스님이 전해준) 그대의 편지를 보니 매우 위로가 됩니다. 지난 가을과 겨울에도 그대가 편안한지 늘 염려했습니다.

나는 전편 편지를 보낼 때와 같이 더한 것도 덜한 것도 없음을 씁니다. 영순 스님의 향학에 대한 뜻이 매우 가깝습니다만 돌아켜보건대 나는 우매하여 어느 것 하나도 능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배를 잡고 웃음이 나는 것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집 종이 돌아가는 편에 대략 몇 자 부칩니다. 아울러 지난번 써 놓았던 편지도 함께 보냅니다. 이만 10월 6일 내용

백파 스님은 아직도 성 박, 토굴에 주석하면서 동안거에 우리들을 모아 개강한다고 하니 매우 기쁩니다. 그 사이에 선지를 왕복했던 것이 있는데 만약 그대와 서로 증험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텐데 이런 일을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멀리에서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새 책력을 보내니 받아주세요

(原械已閱月而李君停行不去 永淳閣黎 忽此遠到 並見師書甚慰 秋冬之際 一以禪安深意 此狀如原械時 無增無減而已 淳之向學底意甚嘉 願此空空無一物者 何以波及人耶 不勝捧腹 適因家評之

#### 소치·제자·승려 등 편지 전달

“새 책력 보내니 받아주세요”

백파 스님과도 선지 나눠

歸 略付數字 並原械奉及耳 留續 十月六日 那翁白坡尚在城外 任錫於土窟 結冬聚徒開講云 甚可喜也 間有禪旨往復者 若得如師互相證發 尤可喜而是豈獨世易得者耶 殊切遠題 新篋莞收

초의와 추사의 편지를 전달해 준 인물로는 소치 허련과 추사의 제자들, 그리고 추사 맥의 노복들과 초의와 관련이 깊었던 승려들이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추사의 문하에서 공부하기를 원했던 승려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험난한 뱃길을 마다하지 않고 추사를 찾아 나섰다.

이러한 사실은 추사가 “영순 스님이 갑자기 이

멀리까지 왔으며, 아울러 (영순 스님이 전해준) 그대의 편지를 보니 매우 위로가 됩니다”라고 한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실제 추사를 찾았던 영순 스님이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초의와 관련이 있었던 승려일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추사는 “영순 스님의 향학에 대한 뜻이 매우 가깝습니다만 돌아켜보건대 나는 우매하여 어느 것 하나도 능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 여겨진다. 조선의 지성을 대표했던 추사였기에 벽지에서 온 승려를 가르칠 만한 학식이 부족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겸손에는 조선의 선비다운 겸양이 묻어났다. 한편 추사는 백파와도 선지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왕복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그 사이에 선지를 왕복했던 것이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백파는 일찍이 한양 근교 수락산의 학림암에 안거하며 강학을 열기도 하였는데, 이는 “백파스님은 아직도 성 박, 토굴에 주석하면서 동안거에 우리들을 모아 개강한다고 하니 매우 기쁩니다”라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

특히 추사는 선지에 대해 초의와의 담론을 통해 그의 식견을 확충해 나갔는데, 이는 “그대와 서로 증험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텐데”라고 한 말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추사는 선리를 증험할 수 있었던 대상으로 초의를 꼽았고, 초의를 통해 불교적인 사유를 확대한 것이라 하겠다.



박동준(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 “생명 살림은 곧 부처님 가르침”

원혜 스님 (공주 마곡사 주지)

‘춘마곡 추감사’라는 말이 있다. 공주 태화산 기슭에 자리한 마곡사의 봄 윤치가 일품이라는 뜻이다. 천년고찰 마곡사에 파릇파릇한 봄기운이 올라올 때면 신록축제가 열린다.

10회를 맞이하는 신록축제가 4월 27~28일 마곡사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의 주제는 ‘생명, 수행, 나눔, 그리고 맨발로 걷다’. 자연과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 화합의 의미를 지녔다.

사실 마곡사는 현 주지 원혜 스님이 부임하기 전 혼란에 빠진 일이 있다. 원혜 스님 부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추락한 본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었다. 스님을 비롯한 마곡사 대중이 생명과 수행, 화합을 기치로 주변 마을과 공동체를 이루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자 마곡사 위상은 높아져 갔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그 중심에 있는 원혜 스님을 마곡사에서 만났다. 공주 마곡사=노덕현 기자

- 마곡사 신록축제가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생태교육과 나눔행사로 진행된 신록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계십니다.

마곡사에서 봄의 푸르름을 감상하자는 신록축제가 벌써 열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2009년 말에 주지로 왔으니 2010년부터 신록축제를 마곡사에서 주관하였지요. 그 이전에는 마곡사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

다. 절 아래 상가변영회와 마을 주민들이 관광진흥행사로 노래공연 같은 것을 했지요. 이것을 2010년부터 마곡사가 주최가 되어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신록축제를 단순한 문화공연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어려운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행사로 바꾼 것입니다.

신록축제의 시작은 ‘화합의 비법만 만들기’로 시작합니다. 행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큰 그릇에서 수백명이 공양할 비법만을 만들어 마곡사를 찾는 관광객, 태화산 등산객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줍니다. 대웅전 앞 메인 공간에는 일체의 상업적 판매처가 들어 서지 못하고 오직 생태 환경과 관련한 환경단체, 시민 에너지 단체와 문화단체들만 전시공간을 열어 체험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맨발로 걷기’입니다. 태화산이 크게 유명한 산은 아닙니다만 산책로와 등산로가 참 좋습니다. 조계종 산악회의 엄홍길 대장이 산악회원들과 와서 걸어보고는 흙길로 된 등산로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드문 곳이라고 극찬을 하더군요. 백범 김구선 생을 기념하여 백범 명상길이라 이름붙인 태화산 둘레길을 체험해보는 것이 올해의 주요 행사입니다.

마곡사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돌아가신 분이라면 저절로 생태주의자가 되고 환경운동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한다거나 난개발로 망가트리는 일에 대해 반드시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신록축제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 원혜 스님은 지역민들과 상생을 하기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대표적인 불교계 인사입니다. 상생의 행보를 걷게 되신 계기를 말씀해주시요.

주지 진산스님부터 나눔의 김장 행사로 열어 수천포기 김치를 교구의 복지시설과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축하 화환이 아니라 쌀을 기증 받아 함께 나누어주었지요. 그 이후로 매년 가을이면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큰절이고 작은 절이고 신도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고 도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터전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물려받은 도량은 온전히 다음세대로 이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나눔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찰의 주인은 사부대중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실을 확인하는 일일 뿐입니다. 출가 이부중이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 수행하고 증생을 교화하는

교단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재가 이부중 또한 사찰과 승단을 외호하고 유지 발전시키며 정법의 수레바퀴를 함께 굴러가는 운명공동체입니다.

나눔은 우리 불교가 풍족해서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마땅히 필요한 곳으로 돌아가는 일일 뿐입니다. 불교는 다만 거드는 역할만 할 뿐이지요.

당장 10년 후 20년 후의 불교를 상상해보십시오. 고령의 인구가 다 돌아가신 다음에 법당을 채우고 도량을 찾아올 불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 해답이 저 멀리 있는 거대도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절 아래 마을에, 걸어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이내에서 사는 분들이 이 절을 자기 절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마다 자기 지역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 때 불교의 미래가 열립니다.

저와 함께 수행하고 함께 기도하는 신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행복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건강한 노동을 함께 하면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마음공부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마곡사람들’이라 하여서 귀농인들에게 사찰 유휴토지를 경작하도록 하는 공동체도 추진했습니다.

또 아래 공민학교 터에 협동조합 ‘두레배움터’가 만들어져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재생에너지와 적정기술, 그리고 생태적 휴먼건축을 교육하고 농가주택 개량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6.25 전쟁 뒤에 학

주지 취임하며 ‘신록축제’ 주관 시작

김장 나눔 행사 등 공동체 구성 관심

협동조합 3년째 운영, 생태 마을로

1978년 부터 마곡사에서 가행 정진

임기동안 대중공의제로 사찰 운영

수행 본분으로 돌아가는 길이 불교 중흥

교를 가지 못하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민학교인데 뒤에 정식 학교가 세워지면서 폐교된지 30년이 된 곳입니다. 현재 강릉자비복지원의 자선이 되어 있는 곳인데 우리가 사용하도록 부동스님과 윤달스님이 흔쾌히 협조하여주셔서 ‘두레배움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는데 작년 연말에 충청남도 예비사회직업으로 등록되어 올해부터는 농가 개량사업과 휴먼건축 등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역민들이 주인이 되고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쌓이면 제가 꿈꾸는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09년 취임 당시 ‘심부름하는 사지’, ‘대중공의제 운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승려복지를 강조했습니다. 4년 동안 걸어오신 길을 되돌아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스스로를 평가하려면 아무래도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처음 뜻한 바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돌아켜 보면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제가 주지로 부임하기 전 6교구는 10년에 걸쳐 혼란이 지속되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소통도 없었고 한 사람의 전횡과 무리한 사업추진이 일을 계속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대중공의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추진력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합의에 의한 사업추진이야말로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구장은 이런 대중공의제가 안착하도록 ‘심부름하는 사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지요.


다행히 제 임기 동안에 교구 혼란은 종식되었습니다. 교구의 구성원들이 적극 도와주고 또 내일처럼 나서서 함께 해준 덕분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씨가 ‘새




제10회 신록축제에서 연등을 만드는 불자들



봉축법요식을 겸해 열린 제10회 신록축제에서 관복요식을 진행하는 원혜 스님



##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는 분을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중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계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시요  
한국 및 세계 고승 500인 한분 한분의 공적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  
고승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지구촌 곳곳에 배포하여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오.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世界 法王 & 僧王 推戴委員會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 시작했습니다  
世界 佛敎 高僧團 人名 辭典

세계 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1인 A4용지 1장 분량 소개  
세계 고승단 인명 사전 편찬 진행중입니다.

법하계서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 500인. 법왕청 및 승왕청 내각 580인  
자랑스런 불교계 고승단 큰스님 총 1080인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심을 모든 스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불교사의 영광이요 불교계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개별특지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원혜 스님은 ... 원혜 스님은 1973년 공주 마곡사에서 일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포교원 포교부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민주통일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스님은 은 부여 고관사와 강경 용암사, 서울 봉은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로운 일을 알겠다'고 했지요? 저는 불교적으로 '때로는 하지 않음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리한 일을 추진하지 않고 대중이 동의하는 일반 하니 교구가 안정이 되고 이제는 추진하는 일마다 장애가 없습니다. 승려복지에 관해서는 교육, 의료 등 많은 분야가 필요하지만 특히 고령의 스님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수행마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 불안이 사설사당이나 개인통장 혹은 토굴 같은 것을 확보하려는 유흥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안을 검토한 결과 교구 본사인 마곡사 산내 암자 터 가운데 하나를 수행마을의 후보지로 생각하고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10여분 안쪽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시설이나 규모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일인데 많이 늦어진 것은 아무래도 교구 살림살이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출가하게 되셨는지와 수행과정이 궁금합니다. 법정 스님이 그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출가 동기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하거나 특별한 일이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불가와 인연이 닿았고 스님 생활이 너무 좋아서 일찍 출가했습니다. 출가한 뒤에는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범어사 강원을 다녔는데 당시 도반이 지금 범어사 주지를 하는 수불 스님, 동화사 주지를 하는 성문 스님 등입니다. 강원을 마치고도 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범어사 강원을 마치고 1978년에 출가본사인 마곡사로 돌아와 재무 소임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이고 배움에 신심이 절로 날 때라 소임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부해보자."라고 강원 학인 출신은 물론 선원수좌와 팔까지 뜻이 맞는 스님들을 마곡사에 모였습니다. 강백으로는 시조시인으로 유명한 절은 조종현 스님을 모셨습니다. '태백산맥'을 쓴 소설가 조정래 선생의 부친이시요. 조종현 강백은 1930년대에 만공 스님이 마곡사 주지를 하신 때 강사를 하셨던 적이 있어 마곡사와는 인연이 깊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강백을 모시고 열의에 찬 젊은 스님들이 (금강경)을 배웠습니다. 일종의 학원이었던 것이지요. 전강을 한다고 산에서 구부러진 나무를 잘라다 주장자도 쥐고 나무대로 구색을 갖추려고 노력했습니

다. 대광보전 옆 심검당에서 한철 이상 공부를 했는데 함께 공부한 스님들이 성문 스님, 현담 스님, 현기 스님, 허운 스님, 수좌인 구암 스님, 화정 스님, 위빠사나 전문 수행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부산 태종사 주지 진용 스님 등이었습니다. 젊은 우리만 강의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시 진경 스님이 본사 주지셨는데 틈틈이 책상을 놓고 함께 강의를 들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겨울을 나고 학림은 여러 사정으로 중단되었지만 함께 공부한 스님들이 이대로 공부를 중단하기는 너무 아쉽다며 서울 돈암동 보문사에서 중앙승가대학을 열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중앙승가대학으로 발전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곡사는 결국 중앙승가대학의 발원지인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미 보배 가득한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말은 우리 마곡사 역대 고승 가운데 한 분이신 고려 보조지눌스님이 <수심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는 무진장한 보물이 있음을 알고 감탄합니다. 아무리 피로도 다함이 없지요. 여러 불자님들도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아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은 한량없는 과거생에 무수한 공덕을 지은 덕분임을 자각하시고 금생에 복을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쌓아서 영원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운문 스님은 '도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해 '가라(去)'고 대답하셨습니다. 불교는 중생으로 태어났으나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중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수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노력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지향점을 보여주셨기에 부처님오신날이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나의 존재를 닦아 바르게 사는 힘을 얻는 일입니다. 내 뜻과 몸과 말을 늘 바르게 닦음으로써 내가 속한 가정, 내 직장, 내가 사는 사회가 바르게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수행합시다. 그리고 늘 기도합시다. 불교가 불교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수행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그 등불을 이어가야 합니다.



4월 28일 신록축제에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협약식



환경살림을 위한 붓글씨 퍼포먼스에서 정부에 요청서를 쓰는 원혜 스님

### 전법일기

#### 봉축음악회

우리절 인근에 중산층 아파트 단지가 4-5년쯤 전에 들어섰다. 27개동, 2420가구로 꽤 큰 규모다. 내가 처음 여기로 왔을 때 골조 공사가 한창이었다. 새로 이사 오는 이들에게 어떻게 전법할 것인가가 당시에 나의 화두였다. 전법을 하려면 우선 우리절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려야 했는데 어떤 방법을 쓸지 고민이었다. 우리절은 도로에서 한 블록 들어온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전통신사도 아니어서 도로에 간판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사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절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은 스타 마케팅(star marketing)이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광고에 등장하면 매출이 눈에 띄게 늘기 때문에 그 시대 최고의 스타는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지금은 가수 싸이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안 하는 광고가 없을 정도다. 우리 절에서도 그 홍보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중가수를 불러서 음악회를 하는 산사음악회가 대표적이다. 나는 우리절에서도 그걸 하고 싶었다. 언제였던가? 음악회 문제로 서울에 있는 어느 기획사에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내려왔다. 그에게 지명도가 높고 사람을 끌어들이 수 있는 가수들을 출연하게 할 경우 얼마나 소요되는지 물었더니 무려 4천에서 4천 5백만 원을 제시하였다. 내가 난감한 표정을 짓자 그는 사람을 모으는 데 연예인 이상 가는 게 없다고 단언했다. 우리절 연간 예산이 열만대 4천이라니... 그렇게 음악회는 못했다.

### 절의 흥겨운 법음이 불자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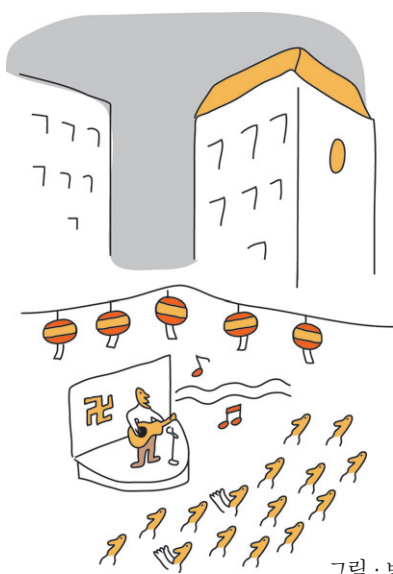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 절 집안에도 스타마케팅 필요 산사음악회 등 적극 활용해야

일은 꼭 우연히 터진다. 대구불교방송의 직원들이 우리절을 방문했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들이 음악회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눈이 번쩍 띄었다. 우리절 음악회를 진행해 줄 의향이 있는냐고 물었더니 도량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마당이 있으니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마침내 대구불교방송팀과 '아주 좋은 조건으로' 봉축음악회를 시작했다. 제작년의 일이다. 첫 음악회 때는 남침 한서경 신유 등 7명이 출연했고, 작년에는 김중환 조항조 신유 금잔디 등

7명이 출연했다. 첫에는 1천 5백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하였고, 작년에는 1천 2백 명이 참석했다. 작년에는 두 번째 하는 행사인 만큼 어느 정도 알려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홍보를 적게 했더니 참석 인원이 줄어든 것이다. 나는 두 번의 음악회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지역주민에게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우리절이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전법의 기초도 마련됐다. 보너스가 하나 더 있다면, 음악회에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참석하여 지역주민들과 만난다. 그들은 모두 우리절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들의 협조가 꼭 음악회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봉축음악회에 대해 긍정적 평가만 있는 건 아니다. 비판의 시각도 있다. 비싼 돈 들어가며 불교와 관계없는 대중음악을 공연한다는 것이다. 옳다. 나도 주지가 되기 전에 산사음악회가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흐르는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우아한 클래식을 연주한다든지 고상한 국악을 연주한다고 해보자. 몇 사람이나 참석하겠는가. 가끔 나는 현실주의자가 된다. 오는 5월 12일 오후 5시에 세 번째 봉축음악회가 열린다. 정수라 안지환 김범룡 한서경 박정수 금잔디 박시연이 출연한다. 별이 내려질 것에 대비해 종이모자도 구비해 두었고, 비가 내릴 경우를 생각해 비옷도 준비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하라!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운장대 인등

####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Table comparing traditional and LED lantern bulbs with columns for type, power, efficacy, price, and lifespan.

####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